

지역 소식통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일부 올려

고창군이 이달부터 1년간 군민안전보험의 한도 보장금액을 높여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의 생활안정을 돕는다.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애·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애·상해사망 등 16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농기계사고 사망 시 지난해 1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확대·가입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신규 청년 4H회원 모집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규)는 농업에 종사 하면서 꿈을 키우는 청년농업인에게 4H 이념 보급과 전문 농업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해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신규회원 모집 활동과 4H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H운동은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청소년과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지역사회 교육 운동으로 현재 부안군 전체 청년농업인은 600여명이며, 이 중 청년 4H회원은 현재 12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청년4H회는 회원간의 영농 관련 기술교류 등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고, 일반 농업인 단체와는 달리 학습단체로서 지·덕·노·체의 4H 이념을 바탕으로 과제이슈를 통한 자기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공헌해 왔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더 많은 회원 확보를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왔다.

/부안=김석진 기자

이웃 간 친근감 쑥쑥!

정읍시, 주택가 문폐달기 '눈길' ... 연지동 주택 65가구 명폐 부착



정읍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활력을 띠고 있다.

시는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응모한 연지봉사대와 함께 연지동 일대의 주택가 때문에 주소와 이름이 적힌 문폐를 달아드리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연지봉사대가 독거노인 돌봄과 청소, 반찬 봉사, 도배, 보

일러 수리 등 봉사활동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시작했다.

연지동 주택가는 골목이 많고 문폐가 없어 봉사대상자 가구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연지봉사대는 예전에 다 정다잡했던 문폐가 없어진 것을 아쉬워하며 거주자의 주소와 이름이 적힌

문폐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연지봉사대와 도시재생 실천대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골목길 주택가 65가구에 주민들 이름을 하나하나 새긴 문폐를 달며 집집마다 행복하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를 기원했다.

특히 집집마다 똑같은 모양의 문폐로 제작해 마을 공동체 형성에 기여했으며, 주민이나 외지인이 쉽게 해당 주택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허중성 봉사대장은 "대상 주택을 조사하고 문폐를 달아드리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연대를 통해 소외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네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380명 도입 박차

고창군-네팔 마차푸차레 지자체 계절근로자 도입 화상 업무 협약

고창군이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난 16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네팔 마차푸차레 지자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화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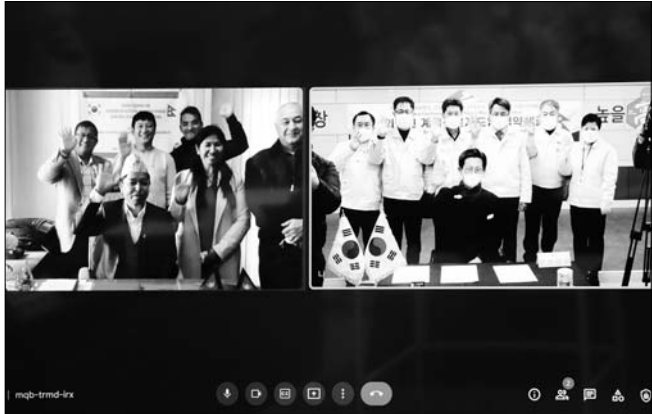
이날 협약식은 고창군수, 농수축산정책국장, 농생명지원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네팔 마차푸차레 의장(카르나 바하두르 구릉)과 관계자는 비대면 화상 시스템을 통해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농촌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에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고창군은 네팔 2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300명을 도입하고, 결혼이민자 친척과 국내 체류 외국인 80명을 수급해 4월 중순부터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계절근로관리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외국인 계절근로관리 전담팀을 신설했다.



고창군이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난 16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네팔 마차푸차레 지자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화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마차푸차레 지자체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네팔 순찰시외도 계절근로자 200명 추가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고창군은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네팔 마차푸차레 지자체는 고창군의 선진 영농기술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수는 "최근 농가들이 코로나 19로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적극 추진해 농촌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위반 확인 시 '강력 대처'

정읍시, 산외면 만병마을 인근 오염도 공개조사

정읍시가 환경 오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산외면 만병마을 인근의 토양 오염도와 수질 오염 여부 등의 오염도 조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시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민원 현장(산외면 상두리 796번지(만병마을 인근))에서 민원인과 해당 마을주민, 토지 소유자 언론인, 경찰 시청 관련 부서 직원 등 다수의 관련자가 입회한 가운데 조사에 나선다.

시는 시료 채취에서부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기까지 조사 전 과정을 공개하는 물론 시료를 민원인이 지정하는 5개 지점 이상에서 채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시는 민원인 등의 입회자들에게 조사 계획과 일정 등을 공문으로 안내했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공개조사가 진행되는 민원은 2020년 8월경 발생했다. 시는 민원 접수 후 민원인이 입회한 가운데 해당 물질 등에 대한 성분과 부속도 하천수 수질을 검사했다.

이후 검사 결과와 현장 확인 사실을 기초로 민원 발생 행위자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위반건으로 정읍경찰서에 고발했고,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시는 "히후 2021년 12월경 다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공개조사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농지원부→농지대장 전면 개편

부안군은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를 개편하고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법령 개정으로 현재 농지원부의 경우 농업인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지만 오는 4월 15일부터는 농지필지를 기준으로 농지대장이 작성된다.

특히 현행 1000㎡ 이상을 경작해야 농지원부 작성 및 발급이 가능했던 조건이 폐지돼 그 대상이 모든 농지로 확대될 예정으로 그동안 1000㎡ 이하인 경우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전국 농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관

련 정보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농지원부 관한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됐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을 방문해야 작성 가능했지만 농지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농지소유자 및 임차인이 농지대장 작성 또는 발급을 신청하면 최대 10일 후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에게 농지대장도 발급받을 수 있다. 관련 정보와 함께 각지의 농지원부에 기록된 사항들이 담긴 안내문이 발송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자동 가스차단 안전장치 '타이머록' 보급

부안군이 화재 및 가스사고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자동 가스차단 안전장치 '타이머록' 보급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까지 200여가구에 대해 설치 완료했다.

타이머록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장치로 가스레인지 과열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군은 지난 2015년부터 화재 및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는 타이머록을 관내 취약계층에 보급해 왔다.

특히 군은 가스 사용부주의로 화재 발생이 높은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0가구 늘어난 총 350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총 175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전북도 지원 외에 자체 예산 122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60세 이상 고령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경로당 등 가스안전 취약계층 조건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가구다.

타이머록 설치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설치하는 오는 4월부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타이머록은 주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